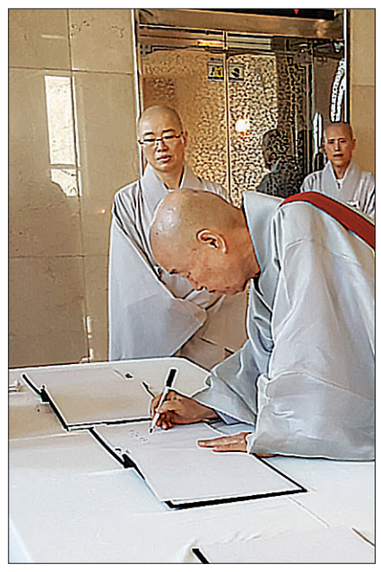
연꽃처럼 살다 가신 스승이자 참수행자

蓮子堂 慧圓 스님 行狀

1938 일본 요코하마에서 나신 후 8세에 부친의 본가 경북 고령으로 이주
1981 대행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92 한마음선원 주지 취임 후 선사의 자비 원력을 받들어 자리이타의 행원력으로 생활 참선 수행을 선도
2002~2006 제13대 중앙종회의원
2011~2015 제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2012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2017 8월 21일, 법랍 37세 세수 80세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입적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1일 오후 9시경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찾아 가장 먼저 조문하고, 선원 스님들을 만나 혜원 스님과의 인연담도 전했다.


성우 스님은 8월 22일 이른 아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문도들을 위로했다.

각계 인사 조문 애도

한마음선원의 기둥이었던 혜원 스님의 원적 소식에 전국 한마음선원 신도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1일 오후 9시경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아 가장 먼저 조문했다. 스님은 일정을 마치고 주석처로 이동하던 중 부음을 듣고 바로 한마음선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분향하며 조의를 표했으며, 조문 직후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혜도 스님 등 선원 대중 스님들에게 은사스님과 주지 스님의 유지를 잘 이어가길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한마음선원은 사찰법인으로는 종단에서 가장 활성화 된 곳이다. 모두 인력과 시스템이 모두 잘 갖춰있기 때문"이라며 "대행 선사 제자 스님들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다. 사형 사제 스님들이 모두 합심해 대행 선사와 주지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혜원 스님과의 인연담도 풀어놨다. "중앙종회의장 당시 혜원 스님께서 종회의원으로 활동하셨다"고 술회한 자승 스님은 "삼막사 주지를 지낸 바 있어 한마음선원과는 인연이 깊어 애정이 각별하다. 특히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대행 스님이 자주 삼막사 아래쪽에 산책을 오셨다"고 회고했다.

이튿날에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과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들이 대거 분향소를 찾았다.

성우 스님은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이사장 혜수 스님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성우 스님은 "어른이 계실 때는 정월에 세배하러 갈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내가 나이 들어 이제는 어른 스님이 안 계시니 너무 허전하다. 이사장 스님도 이제 내 말을 알게 될 것"이라며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오라"고 위로했다.

이어 "BTN불교TV 발전에 한마음선원과 혜원 스님이 많은 역할을 했다. 선원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선원 대중 스님들이 모두 마음공부를 잘 하니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혜거 스님은 '허심자유 각해일륜(虛心自遊 覺海日輪)'이라는 만장을 남겼다. 혜거 스님은 "혜원 스님은 자기 마음을 내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스님이었다"면서 "대행 스님의 큰 원력을 가장 잘 받들고, 어른을 잘 모셨다. 특히 도량불사에도 많은 역할을 해 잊기 힘들 만큼 좋은 스님으로 기억한다"고 고인의 생전 모습을 회고했다.

혜거 스님은 또 "'허심자유'는 상(相)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운 채 살았던 혜원 스님을 위해 쓴 것"이라며 만장 의미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대행 스님의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선원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과 인연이 깊은 최기영 대목장도 같은 시각 분향소를 방문했다. 최 목장은 "평소 혜원 스님께 드리려고 발우를 차에 싣고 다녔는데 여태껏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7합발우를 한마음선원에 전달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분향소를 찾은 불자들은 혜원 스님을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회고했다.

박강숙 신도는 "저에게는 살아가는 데 법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셨다. 대행 스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혜원 스님은 어머니나 다름없었다"면서 "항상 실천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 스님께서 남겨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보살은 "입적하신 게 믿기지 않는다. 처음 소식을 듣고 한동안 정신이 멍했다"며 "혜원 스님은 친정엄마 같은 스승이셨다. '돌에 피가 밸 듯이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 前포교부장 송묵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본각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이 방문해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내가 본 혜원 스님



이 시대 지장보살 화신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

저와 한마음선원 주지인 혜원 스님의 인연은 28년 정도 됩니다. 제가 1980년 총무원 교무국장 소임을 볼 때 처음 뵈었죠. 그때 총무원을 찾아오셔서 인연이 시작됐고, 2012년 포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혜원 스님은 포교를 향한 대단한 원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포교원이 다양한 포교활동을 펼치는 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할 분께서 돌아가시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혜원 스님을 이 시대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혜원 스님만큼 오랫동안 상(相)을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교하신 분은 참 드뭅니다. 어찌 보면 포교를 함에 있어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을 늘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선뜻 도와주기 쉽지 않을 텐데도, 스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여 도닥였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호소할까'라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토록 자비로웠던 스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한마음으로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스님 말씀도 떠올려봅니다. 이 시대 비구니 스님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사셨던 혜원 스님. 이제 다시는 두 눈으로 스님을 만날 순 없지만 스님이 보여주신 원력과 가르침은 후대에 아낌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2600여 년 동안 흘러 후대에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리의 수승함 때문입니다. 이처럼 혜원 스님이 사회를 위해 보이셨던 큰 원력은 수많은 중생들을 위한 하나의 사표(師表)로 남을 것이고, 한마음선원 대중은 이를 따라 사회를 맑히는 법향을 피워낼 것이라 믿습니다.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님들도 당장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난 뒤 어떤 방향으로 불교를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포교 일선에서 큰 임무를 맡아온 공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머니 같이 넓은 품으로 대중을 섭수하신 혜원 스님처럼 대중 여러분이 사회에 법향을 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써주십시오. 혜원 스님께서도 열반락을 누리시다가 사바세계로 돌아와 늘 불자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자비롭고 온화한 어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주지스님하고 뵙기 전 창건주이신 대행 큰스님을 더 먼저 뵙고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대행 스님을 뵌 뒤 주지스님과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을 뵀습니다. 제가 봉선사 주지를 2001년도쯤 했는데 당시 제게 맡겨진 소임은 '팔만대장경 완간 회향법회'를 장충체육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는데 '해야겠다' 마음먹고 제일 처음에 온 곳이 한마음선원입니다. 대행 큰스님을 뵙고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하셔서 "돈도 필요하고 인원 동원도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혜수 스님을 부르셨습니다. 혜수 스님이 오시니까 "돈을 5000만원 드려라. 그리고 사람 동원 몇 명 하는데 혜수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셨죠. 이게 가장 제가 은혜 입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은 마치 속가의 누님처럼 아주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자비스러우셨죠. 또 말씀이나 성품이 온화한 어른이셔서, 누가 와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차도 한 잔 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스님을 직접 뵙기도 했죠. 스님은 제가 있는 불암사에 오시거나, 또 명절 때가 되면 본인이 직접 못 오셔도 사제 스님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참 안식이 되었습니다. 함께 얘기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졌죠. 다른 신도님들도 그렇게 대하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항상 유달리 사랑을 주셔서 제가 가슴 깊이 담고 있습니다. 상심이 클 신도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과 스님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법으로써 부처님 계행으로써 스승을 삼고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음선원을 창건하신 대행 큰스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질적으로 한마음선원이 세계적으로 · 국내적으로 지원이 있지만, 대행 큰스님의 원력과 신념,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또 혜수 스님이 큰스님에게 법을 받고 사랑도 듬뿍 받았기 때문에 혜수 스님을 따라 수행을 잘 하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혜원 스님의 평소 말씀은 한마음선원 대중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계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혜원 스님을 따라 대중이 한마음도량을 잘 가꿔가길 바랍니다.



흐트러짐 없는 참 수행자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

주지스님은 제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할 때 같이 활동하셔서 종단 살림과 이부중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주지스님은 "한마음선원이 자꾸 커지는데 이에 대한 체제, 스님들을 통솔하지 못하는 힘, 대행 큰스님의 뜻을 본인은 살리지 못해서 그게 늘 안타깝다"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전화를 드리면 편안하게 받으시고,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주지스님을 존경하는 점은 같은 승단에 사형 사제나 어려움이 많음에도 늘 "다 같이 잘해야죠"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난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큰스님 모시고 살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라며 은사스님을 향한 딸 같은 애정을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마음선원 스님들을 보면 대행 스님의 물결 같은 가르침이 딱 표시가 납니다.

입적하신 혜원 스님의 경우에는 절대 선두에 서거나 각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정 이 시대에 여러 대중을 끌고 가는 처세가 참 보기 드문 분이십니다. 항상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손 · 어깨를 만져주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하시는 이심전심. 스님은 승단에 오셔서 위로는 큰스님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많은 사제들을 보듬어야 되는 남보다도 특별한 인생이자 승려로서의 행장을 사셨습니다. "더 아프면 사제들에게 짐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오면 대접하셨습니다. 한마음선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행 큰스님은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주지스님은 살림살이를 하시며 그 속에서 대중을 통솔하고 같이 묻어나는, 실제적인 승려로서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상 위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어른으로서 할 수 있지만, 대중과 같이 모나지 않게 근 200명의 스님을 그림자처럼 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주지스님은 다 소화해내시고, 또 누구에게나 지도자적인 모습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이외에도 개성이 강한 스님들에게 대행 큰스님의 따듯한 모습을 전달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는데 참 잘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출가해서 한 스님 밑에서 절대 나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부처님의 아난존자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아난존자의 역할을 다 해내시고 나서 가셨죠. 참 멋진 분이에요. 또 항상 단정하시고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갈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양말 하나라도 깔끔하게요.



깊고 깊은 한마음 가운데 빛으로 함께하소서

한마음선원 출판부 · 한마음과학원 · 한마음국제문화원 · 한마음저널 · 한마음미디어실 합장